스스로 나타나신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개역, 출애굽기 3:13~15]

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친 부모는 먼 나라 임금이신데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나를 이 집에 잠시 맡겨놨을 것이다. 언젠가 임금님 되신 아버지가 날 찾으러 오실 거라고 상상하곤 했지요.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자라서 한참 공부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한 대 뽕하고 치시면 갑자기 천재가 되어서 책을 한번 보기만 해도 다 외워지는 꿈도 더러 꿴습니다. 공부하는 게 워낙 고생스러우니까 그런 소망도 가져본 겁니다.

학교 다 마치고 나이가 들면 그런 허황된 꿈이 다 사라집니까? 직장을 구해야 될 때쯤 되면 원서를 여기저기에 넣고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또 허황된 꿈을 꾸니다. 큰 회사 사장님이 나를 모시러 오는 꿈, 온갖 좋은 조건 다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 와서 일 좀 해 주십사' 하면 모른 채하고 가 주는 이런 꿈도 꾸게 됩니다.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사는 게 힘들게 되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 구하는 일만 그렇습니까? 장가 가는 일, 시집 가는 일, 아이 키우다 보면 '다른 집 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 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왜 이런고?' 싶어서 '새로 한 명 더 낳으면 괜찮을까?' 하고 꿈을 꾸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공짜로 주어지기를 아예 바라지 않는 것이 사기 당하지 않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공부 잘 하는 아이나 공부 못 하는 아이나 관계없이 대학 입학시험은 다 고민스럽습니다. 잘 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고민스럽고 못 하는 아이는 못하는 대로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학교에 합격이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취업시험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현실화되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느닷없이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러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좋은 과외선생님 구하기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옛날 얘기에 좋은 스승을 만나려고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간신히 찾아보면 저 깊은 산속 골짜기에 있습니다. 간신히 찾아가면 쉽게 받아줍니까? '제발 문하생으로 받아주십사' 하고 뚫어앉아서 며칠간 버티면 겨우 하는 얘기가 '채목은 별로지만 성질 하나는 쓸만하구나, 한번 들어와 봐라' 들어가서 뉘부터 배웁니까? 빨래하고 밥하고 마당 쓰는 것 3년은 해야죠? 옛날 얘기가 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노력으로 찾아간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수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고 그런 신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동화나 이야기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신들을 만나거나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을 뿜는 용이 지키는 성을 지나고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구사일생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로마카톨릭 신자들은 자선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희생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평생 선한 일들을 계속해도 마음 속에 참된 평화를 누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인도인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보면 참 친절합니다. 무슨 부탁을 해도 거절하는 법이 거의 없답니다. 말도 온순하고 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지 않으려고 대답도 잘 하고 오라고 그러면 잘 옵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자기 신으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워 놓으면 참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삽니다. 대부분의 종교나 윤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찾아오셔서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 믿어라' 이것 뿐입니다. '믿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만 제대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크고 어려운 숙제를 낸다고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될 판국인데 그냥 믿으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무슨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입산수도를 한 10여년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 3000배는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입산수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옛날 어느 스님이 3000배를 해야 자기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유명한 스님이긴 하지만 3000배를 해야 자기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스님 위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와 기독교의 제일 큰 차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데 비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참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압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못을 저질러 집에서 도망간 아이가 집을 잃어버리면 제 발로 못 찾아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신히 찾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인간을 찾아서 헤매 다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십계명도 주셨고 율법도 주신 겁니다.

아이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면 안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다닐 것이며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를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과목을 얼마만큼 공부할 것인지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라고 다 맡겨 놓으면 모르긴 몰라도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은 다 쫓겨날 겁니다. 아이들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을테니까요.

아이들이 뭘 배워야 하고 얼마만큼 배워야 하는지 누가 압니까? 근본적으로 부모가 알아야 하고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도망간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함으로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노아를 불러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저런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기도를 몇 년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만한 재산을 바쳤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까?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산에 올라갔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새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한 마디로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불구경 하러 간 겁니다. 모세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산중턱에 불이 붙었습니다. 산에 불이 나면 점점 번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서 없어지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그대로 있네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령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합시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산중턱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배겨낼 장사 있습니까? 올라가야죠? ‘참 희한하다 왜 저 불이 꺼지지도 안 하고 번지지도 안 하고 그대로 있을까?’ 호기심이 동하지 않을 수 없고 누구라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구경 하러 올라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산에 불을 놓고 ‘이래도 안 올라 올래?’ 마치 유혹하듯이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하고 모세를 부르고 있는데 모세는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자기 처자식이나 돌보면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신앙심이 깊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거 이상하다’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떨떨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느닷없이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모세로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사코 못 한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 주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못 간다고 해도 됩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시니 더 버티다가는 맞아 죽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잘 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떠맡겨버린 겁니다.

내려가서 장인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그동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좀 당당하지 않아요? 장인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형제를 떠나온지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우리 형제들이 잘 있는지 한번 만나봐야 겠습니다’ 이려고 있잖아요?

무슨 지도자가 이럽니까?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하기에는 뭘지 모르게 좀 창피했을 것 같아서가 아닐까요? ‘나이가 80인데 뭘 하겠느냐? 말도 잘 못하면서?’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빙 둘러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는 모세가 사명감에 불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이 없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데카르트의 성찰 혹은 어떤 철학자의 신론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라는 했습니다. 둘 다 신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을 정돈해 놓은 책입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욕을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성경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이따위 책을 읽으라고 하는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다 읽어봐야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실컷 읽어도 남는 게 없어요. ‘신은 존재한다’ 그 소리하려고 책 한권 써 놓은 겁니다.

독후감을 쓰긴 써야 되겠다고 쓸말은 없고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하느냐? 왜 읽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만만 잔뜩 써서 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주 잘 쓴 겁니다. 그 교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성경 아닌 다른 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알려고 해보라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평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아는 게 겨우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제쳐놓고 사람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봐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분에 대해서 할 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들은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산신령은 어디에 삽니까? 산신령이 산에 살지 왜 물에 살아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려고요? 그것 외에는 잘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자세히 알려줍니까?

본문의 예를 본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에 이 표현을 보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어는 더 헛갈려요. *I am what I am.*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것, 저절로 있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표현과 비교해 보아도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표현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에 가장 적합하고 어울리는 표현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의 첫 글자만 따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여호와와 이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발음을 안 해서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후대 학자들이 여호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야훼’일 것이라고 생각하나봐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지키려 한다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아니면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 오백년 전에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고 요청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할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내용이 꼭꼭 차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서 모세가 하는 말은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정도 얘기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일으키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다른 예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경우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식구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강 이쪽 편에 남았습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요? 다 보내놓고 혼자서 뭐 할 겁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두려움에 떨며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어른이 함부로 올 수도 없고 괴로워하는 것을 식구들에게 보이면 안되잖아요? 식구들은 다 벌벌 떨어도 자기 혼자서 안 그런 척 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식구들 다 떠나보냈으니 이제 혼자서 실컷 울고 싶으면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려면 달려야 하는데 누군가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야, 씨름 한번 하자’ ‘내가 지금 씨름 할 때가 아니다, 놔라’ 하는데도 자꾸 달려드는 겁니다.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판 붙어야 되는 거죠.

압복강가에서 씨름하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더 붙어 씨름을 했답니다. 야곱은 씨름 당한 사람입니다. 당했다고 하니깐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놓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까지 씨름을 계속하는 겁니까?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지겠거니 혹은 최소한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 곁에 있지 않느냐?' 그거 깨달아 알 때까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세요.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멀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리 슬퍼하느냐는 질문에 이 철없는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소문을 모른다는 겁니까?'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멍청한 자식들아 구약에 메시야가 이 땅에 와서 이런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쪽 설명을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동행하십니까? '아 주님이시다!'라고 깨달을 때까지요. 목표가 뭐니까?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깨달을 때까지 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곁에 계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네?' 알 수 있도록 얘기하였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마태복음 26:23)' '유다야 빨리 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열심히 그 길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마태복음 26:21)'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큰소리 뽕뽕 쳤잖아요?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게 나가서 아파하며 통곡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차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 못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한복음 21:15)' 우리 아이들 말하는 식으로 하자면 '아시잖아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었더니 베드로가 근심했더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무서웠던 박해자는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가장 큰 제자로 돌아섰습니까? 자기 스스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겁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시면 누가 답답해 하나요? 이스라엘은 지독하게 말 안 듣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불평 불만하는 것이 우리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좋으면 '해~' 했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이렇게 원망해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못 가겠다. 너희끼리 가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다 보면 너희가 나를 하도 화나게 하니 내가 한꺼번에 너희를 전부 멸해버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같이 못 가겠으니 너희끼리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핫김에 이스라엘을 전부 멸해 버리신다? 이걸 하나님께 좀 안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온갖 사랑, 온갖 은혜를 다 베풀며 끌고 간 겁니다.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누가 배짱이고 누가 답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사정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수 없이 수 없이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갑니다. 그렇게 어긋나게 굴다가 결국은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다 잃어버렸더라. 이게 열왕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또 부르셔서 구원역사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누가 우리대신 예수님께 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밥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와 밥 먹이려는 엄마, 누가 답답합니까? 엄마가 더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러거든 학교 때려치워라' 하고 가방을 던져 버렸더니 '나도 학교 가기 싫은데 잘 됐다!' 하고 학교 안 간다고 버티면 누가 답답하죠? 엄마가 져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것보다 한 수 더 떠서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고 집 나와 버린 철없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집 나온 아이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 맞다.' 이러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증명하고 불러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어 가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오히려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